



경기색별중 '영어 그림책 실험실'

## 그림책으로 여는 색다른 영어세계

### Index

- [자유학기제 현장 돋보기]  
경기 색별중 '영어 그림책 실험실'
- [자유학기제 현장 돋보기]  
지도교사가 말하는 '영어 그림책 실험실'
- [교과융합 수업지도안 들여다보기]  
동계스포츠클럽 속 힘과 운동 융합판넬 제작 수업
- 4~5 [거꾸로 교실 도전하기]  
충북 충주북여중 '영어송으로 문법 짝 잡기'
- [교사-학생이 함께하는 수업 혁신]  
대구 화원중의 비주얼 씩킹 수업
- [영상으로 배우는 영어]  
서울 문성중의 영상을 활용한 영어 수업
- [이달의 시사 논술]  
무의미한 연명치료보단 '웰 다잉(Well Dying)'
- [교육 초대석]  
달라진 수업 고민에 '퍼실리테이션' 해답으로 내놓는 백수정 인팩트러닝 공동대표
- 10 [추천!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주 빅스컴퓨터박물관 '꿈이 IT니?' 대전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미래유망 녹색직업 체험'
- 11 [함께 성장하는 스승♡제자]  
너와 나, 경계 없이 우리는 모두 친구



책 'Macbeth'의 한 장면을 연극으로 연출하고 있는 색별중 학생들. 색별중 제공

경기 색별중의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인 '영어 그림책 실험실(English Picturebook Lab)'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영어 그림책을 읽고 책에 대한 감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영어 읽기-쓰기-말하기 실력을 골고루 기른다.

이 수업을 기획한 손민영 경기 색별중 영어 교사는 그림책을 읽은 뒤 등장인물의 성격을 꼼꼼하게 분석해보고, 책 표지 디자인을 완전히 새롭게 해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문학적 감수성, 창의적 사고력, 심미적 역량을 높였다.

'영어 그림책 실험실' 수업은 블록타임으로 묶인 매주 화요일 5, 6교시에 총 18차시로 진행됐다.

### 그림책, 연극으로 리메이크!

5~10차시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아낌없이 발휘하는 시간. 먼저 5~8차시에는 책 'Macbeth'의 주요장면을 연극으로 표현해본다. 이 수업은 지역사회 도움을 받아 파견된 연극 전문 강사와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학생들은 강사로부터 간단한 연극 연출법을 익히고, 미리 준비된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 책 속 한 장면을 자유롭게 연출한다. 직접 영어 대사를 읊으며 연기도 했다. 손 교사는 "학생들은 바다를 건너는 장면에서 파란 천을 활짝 펴서 흔들는 등 교사도 깜짝 놀랄 만큼 뛰어난 연출실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9~10차시에는 책 'Voices in the park'의 표지만 보고 내용을 추측해 '이야기 만들기' 활동을 해본다. 한 명씩 돌아가며 한 문장의 이야기를 지어 전체 스토리를 완성하는 것. 숲 속에 아이 두 명이 서있는 표지 그림 때문에 '소녀와 늑대의 슬픈 사랑'이라는 실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긴 했지만, 직접 이야기를 만드는 활동 자체에 학생들은 큰 흥미를 보였다.

사실 이 책은 같은 사건을 경험한 네 명의 인물들이 해당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각각의 시점에서 서로 다르게 묘사한 작품. 책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등장인물인 셈이다. 이에 등장인물의 성격, 외모 등을 상상하여 그림과 영어문장으로 표현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등장인물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도 기르게 된다.

### 시를 쓰는 베짖이가 되어...

11~12차시에 학생들이 읽은 책 'Frederick'은 동화 '개미와 베짖이'와 내용이 비슷하지만 결말은 정반대다. 베짖이처럼 일을 하지 않고 봄을 만끽하던 주인공 프레드릭은 겨울이 오자 봄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시를 지어 오히려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 학생들은 책을 읽으며 예술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

직접 '다이아몬드 영사'도 써본다. 다이아몬드 영사란 하나의 주제어에서 시작해 그 단어를 묘사하는 형용사-동사를 나열하고, 마지막에 주제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로 마무리하는 시를 말한다. 가령 monster(괴물)가 주제어라면 horrible(끔찍한), scary(무서운) 등의 형용사를 나열한 뒤 creature(피조물)라는 단어로 시를 끝내는 식. 1행은 영사 하나, 2~6행은 형용사-동사 여러 개, 마지막 7행은 다시 영사 하나만 써서 시가 다이아몬드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간단한 영단어만으로 시를 지을 수 있어 영어 실력이 다소 부족한 학생도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 장점.

13~14차시에는 책의 표지를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해본다. 15~16차시에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나만의 그림책을 직접 만들어본다. 손 교사는 "학생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림책은 5장 정도로 짧게 만들도록 하고, 이야기의 열개는 사전에 짜오도록 했다"면서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영어 그림책을 몸소 만들어보며 영어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17~18차시는 가을 야외 독서활동 시간. autumn(가을)을 소재로 육행시를 짓고 단풍잎으로 예쁘게 꾸민다. 손 교사는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시를 낭송하며 가을을 만끽했다"면서 "단순히 그림책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수업을 즐기게 되는 것이 이 수업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 자유학기제 현장 돋보기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는 오후 자유학기 활동(△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학생의 수요를 반영해 개설되는 만큼 형태도 다양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할까'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숨겨진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 운영 사례를 소개합니다.



색별중 학생들이 만든 꿈 명함과 꿈 명함 받침대. 색별중 제공

### 책 속에서 찾는 나의 꿈

독서교육이라고 하면 국어 교과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영어 교과도 예외는 아니다. 다양한 어휘표현으로 가득한 '책'을 읽는 것이야말로 외국어를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것. 하지만 정규 수업 시간에 독서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손 교사가 자유학기 영어 수업에 독서를 적극적으로 접목시킨 이유다.

먼저 1~2차시는 스쿠버다이빙, 스모선수, 영화배우 등 수많은 꿈을 가진 윌리의 이야기를 담은 책 'Willy the Dreamer'를 읽고 자신의 꿈을 구체화해보는 시간. 1차시에 학생들은 스스로 윌리가 되어 꿈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름-직업-연락처 등이 영어로 적힌 '꿈 명함'을 만든다. 2차시에는 도서관으로 이동해 영어 그림책을 훑어보며 꿈을 실현하는 데 영감을 주는 문구를 찾는다. 이 문구를 종이컵에 적고, 종이컵 바닥에 메모꽃이용 접착제를 붙이면 '꿈 명함 받침대'도 완성. 학생들은 명함과 받침대를 만들어 보여 꿈에 한 발 가까워진다.

3~4차시에는 그림책을 활용해 게임을 하고, 뒷이야기를 상상해 만화도 그려본다. 먼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엄마가 화가 나서 집을 떠나자 나머지 가족들이 가사노동의 어려움을 깨닫고 반성한다는 내용의 책 'Piggybook'을 읽는다. 이어 '책 수다(Book Chat)' 게임을 한다. 'I like this character the most because...' (나는 이 등장인물이 가장 좋아. 왜냐하면...)처럼 생각된 문장이 적힌 카드를 랜덤으로 뽑고 문장을 잘 완성시켜 말하면 해당 카드를 가져가는 것. 더 많은 카드를 가져간 학생이 승리한다. 또 그림책의 뒷이야기를 네 컷 만화로 그려본다. 손 교사는 "아빠와 아이들이 다시 게을러져서 엄마가 영원히 집을 떠날 것이라고 상상한 학생도 있었다"면서 "뒷이야기를 그려보며 책의 메시지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고, 상상력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손민영 교사가 말하는 주제선택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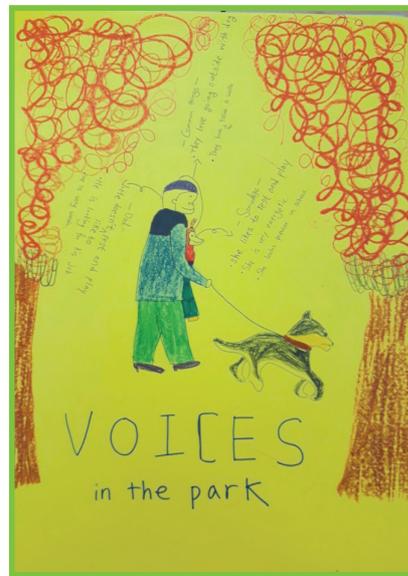
# 독서, 영어를 배우는 최고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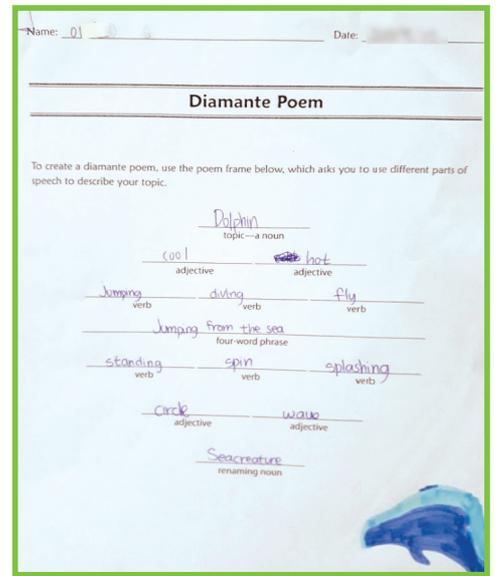
‘영어 그림책 실험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책의 한 장면을 연극으로 연출하기 △책 표지 디자인하기 △나만의 영어 그림책 만들기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한 손민영 경기 셋별중 영어 교사는 “영어 그림책을 통해 그림과 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상황에 딱 맞는 영어 표현을 쉽게 익힐 수 있는 것은 물론, 영미권 문화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어 그림책 실험실’ 수업을 이끈 손 교사로부터 수업 기획 과정과 운영 노하우에 대해 들었다.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셋별중 학생들이 분석한 'Voices in the park' 등장인물.



셋별중 학생들이 직접 지은 다이아몬드 모양의 영시. 셋별중 제공

## Q 수업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내 수업의 모토는 ‘FunFun하게, 뽀뽀하게!’이기 때문에 수업에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요소를 많이 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영어 그림책은 매우 좋은 수업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 역시도 그림책을 활용한 영어수업은 처음 도전해보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했다. 먼저 독서교육 선도교사 연수를 들으며 영어 수업에 독서활동을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또 1년 동안은 학습에 유익하면서도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할만한 다양한 수준과 종류의 영어 그림책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 Q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프로그램은 교사의 재량과 역량에 따라 운영된다. 꼭 짜인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책임에 대한 부담도 따른다. 특히 시험도, 성적산출도 없기 때문에 교사가 고안한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림책이 너무 쉬운 것은 아닐까?’ ‘중1때 활동 중심 수업을 하다가 중2때 갑자기 이론 중심 수업에 적응하려면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등의 생각이 늘 공존했던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영어를 더 공부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책 ‘Macbeth’를 기반으로 한 연극 연출 활동 중, 학생들은 책 맥베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는 못했다. 그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던 차, 마침 학교에서 독서 골든벨 퀴즈 대회를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서 교사 협의하여 영어로 쓰인 맥베스 책을 대회 대상 도서 목록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 대회 참여를 유도했다.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맥베스를 완독하며 영어 독해 실력을



셋별중 학생들이 직접 만든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영어 그림책. 셋별중 제공

높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 Q 수업의 효과는?

학생들이 수업을 무료하거나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한다. 또 ‘틀려도 괜찮으니 일단 써봐라’ ‘틀릴까봐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이야기해봐라’고 늘 강조했던 덕분에 자유롭게 편안하게 영어 표현을 해보는 과정에서 말하기·쓰기 능력을 골고루 기르게 됐다.

“영어 시간이 이렇게 재밌던 적은 처음”이라고 말하는 학생들, 두 빵이 상기될 정도로 열심히 단어를 찾는 학생들, 쉬는 시간에도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학생들을 보며 교사 역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손민영 경기 셋별중 영어 교사



### 교사의 수업지도 도움말

## 자유학기,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다

###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려면?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영어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꾸준히 유지시켜주고, 또 탄탄한 영어 기본기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동시에 교육적 효과도 낼 수 있는 활동을 적절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영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피드백을 수시로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유학기제의 평가 방식 역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훌륭한 도구다.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돌아보며 실시하는 자기평가, 그리고 친구들의 활동을 검토하는 동료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긍정적인 욕심 때문에 스스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다.

### 학생들의 영어 실력 차이를 극복하려면?

영어 교사로서 학생들의 영어 실력 격차는 항상 어깨를 무겁게 한다. 하지만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은 학생 개개인이 저마다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이다. 꼭 영어 작문이나 독해 실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친구들의 의견을 잘 조율한다거나, 아이디어가 기발하다거나 등의 학생 저마다의 장점이 잘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장점을 교사가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칭찬해준다면 영어 실력이 다소 부족한 학생들도 영어에 대한 강력한 학습 동기를 갖게 될 것이다.

다양한 수준의 활동을 골고루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수업에서 책 표지 디자인하기, 단어를 나열하여 영시 창작하기 등 영어 실력이 다소 부족한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과제를 준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교사와 주변 친구들

의 적절한 도움까지 더해진다면, 차츰 자신감과 학습 의욕이 향상되어 가는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제언

자유학기제 도입 이후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교사들 역시 자유학기제 도입 초기에 느꼈던 막막함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새로운 수업 구상 등이 무거운 부담으로 따라오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때일수록 동료 교사들과 함께 좋은 수업을 개발하고, 연수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확장해간다면 다음 자유학기는 더욱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교사가 행복해져야 학생들도 행복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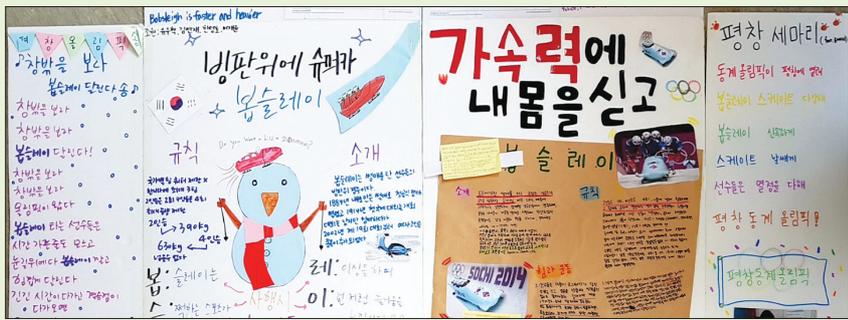
**교과 융합** 수업지도안 들여다보기 '융합형 인재'가 각광받는 요즘, 이런 인재를 길러내는 교과융합 수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집니다. 이 코너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교과융합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업지도안과 함께 수업활용을 위한 교사의 조언도 실었습니다.

진연자 과학 교사의 과학기반 융합수업

#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개념이 머리에 '쑥'

진연자 경기신곡중 과학 교사(올해 2월까지 경기 송내중앙중에서 근무)는 과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재밌게 과학 개념을 학습할 수 있도록 '과자 사이언스' 수업을 기획했다. 과학적 시각으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의미의 이 수업에서 송내중앙중 학생들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종목을 분석하고, 판넬을 꾸미며 중1 과학 3단원 '힘과 운동'을 학습했다. 이 활동은 과학·체육·영어·음악·한문 교과가 융합된 것으로, 학생들은 △동계올림픽 종목에 적용된 운동의 종류를 분석하고(과학) △각 종목의 특징·역사·규칙 등을 영어로 작성한 뒤(체육, 영어) △동계 스포츠송을 작사하고(음악) △동계올림픽에서 지켜야 할 인성 덕목을 선정하고 이를 몸으로 표현한 사진을 촬영했다(한문). 이후 완성된 판넬을 지하철 역사에 게시해 시민들에게 직접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로 판넬을 보내기도 했다. 진교사는 "일반적으로 운동의 원리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원임에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소재로 활동을 진행하니 쉽고 재미있게 개념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자신이 만든 판넬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활동을 하며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실제 삶과도 연결됨을 느끼며 학습의 효능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송내중앙중 학생들이 제작한 융합 판넬. 진연자 교사 제공

대상 중1	과목 과학	단원 3. 힘과 운동	차시 20차시
학습주제	[동계스포츠 속 힘과 운동] 힘과 운동의 원리를 동계스포츠에서 찾아 적용하여 창의적인 융합 판넬을 제작할 수 있다.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9032. 중력, 탄성력, 마찰력, 전기력, 자기력 등 여러 가지 힘의 특징을 알고 이들이 주변의 현상을 이해하는데 활용되는지 이해한다</li> <li>▶과9035-1. 물체의 운동을 관찰하여 힘의 작용 여부에 대하여 안다</li> <li>▶과9035-2. 물체의 운동변화와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관계를 안다</li> </ul>		

1~6차시 수업주제	'힘과 운동' 이해
1~6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힘의 종류와 특성 이해하기</li> <li>▶ 운동 그래프 분석하기</li> <li>▶ 힘 다이어리(인포그래픽) 작성하기</li> </ul>

**교사의 도움말** 이 수업의 핵심은 과학 수업에서 배운 교과 지식을 학생들이 일상생활에 발견·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동계올림픽 융합판넬 제작에 앞서 학생들과 간단히 이론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중력 △자기력 △전기력 △마찰력 △탄성력 등 5가지 힘의 종류와 특성을 살피고, 교사와 함께 그래프의 모양에 따른 힘의 성격을 분석해보며 자료 해석에 필요한 지식을 정리했다. 교과 지식을 학습한 후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체화할 수 있도록 '힘 다이어리'를 작성하게 했다. 5가지 힘이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힘 다이어리 작성을 통해 힘의 특성을 스스로 깊이 이해하고, 과학 개념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고민해볼 수 있었다.

7~14차시 수업주제	융합형 판넬제작
7~14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계올림픽 종목의 종류 및 역사, 규칙 등 자료검색</li> <li>▶ 슬로건 및 콘티 설정</li> <li>▶ 판넬 제작</li> </ul>

**교사의 도움말** 융합판넬 제작은 4인 1조로 진행한다. 소개하고자 하는 동계올림픽 종목 한 가지를 선정한 뒤 두 명의 학생은 해당 종목에 숨어 있는 힘과 운동의 원리를 조사하고, 나머지 두 학생은 각각 해당 종목의 역사와 규칙을 소개한다.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판넬을 제작할 수 있도록 콘티와 제목(슬로건)을 정하도록 사전에 안내한다. 단, 슬로건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힘과 운동의 특징이 드러나는 창의적인 슬로건'을 적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동계 올림픽 각 종목에 어떤 운동 원리가 녹아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영어 교과와의 협의를 통해 학생들이 영어 수업시간에 각 종목의 특징을 간단히 영어로 작성하도록 하면, 영작 실력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 메인 판넬 왼쪽에는 동계 스포츠송을 적은 판넬을 붙이고, 오른쪽에는 인성 덕목을 묘사한 사진을 붙인 판넬을 덧붙인다. 학생들은 운동선수로서, 올림픽 개최 국가의 국민 등으로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자세와 관련된 한자어를 선택한 뒤 해당 장면을 묘사해 사진으로 촬영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탐구할 수 있었다.

15~20차시 수업주제	작품 전시 및 공유
15~20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 및 평가</li> <li>▶ 동아리 활동 결과물 보고회 및 졸업식에 작품 전시</li> <li>▶ 유튜브 영상 공유</li> <li>▶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판넬 전달</li> </ul>

**교사의 도움말** 융합 판넬 제작을 마친 후에는 모둠별 발표 및 평가를 진행한다. 한 모둠이 발표를 진행하면 나머지 모둠은 해당 모둠의 판넬을 보며 잘한 점과 보완할 점 등을 표에 적고 이를 교사에게 제출한다. 또한 △자료검색 △판넬 제작 △발표 등 프로젝트 각각의 단계에 대한 모둠원의 상호평가도 이뤄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이 어떠한 역량을 갖추었으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다. 교사 역시 학생들의 평가지를 통해 교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학생의 장점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당일 지하철 역사에서 학생들과 함께 판넬을 게시하고,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자신들이 만든 결과물에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자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결과물이 사회에서 활용되는 데에 뿌듯함을 느꼈다.

교사의 코멘트

융합수업의 효과를 보다 극대화하려면 다른 교과 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코티칭(Co-Teaching)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학기 초 다른 교과의 평가계획을 살피며 교과 교사 간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각 교과목의 성취 수준을 달성하면서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융합수업도 진행할 수 있다.

이 수업은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일상의 다른 소재로도 충분히 수업을 재구성 할 수 있다. 가령 현장체험학습으로 놀이동산을 방문한다면, 놀이기구 속에 숨은 힘의 원리를 살펴보는 것이다. 교사가 평소 사회 문제, 현상과 과학개념을 연결하며 수업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쉽게도 학생들이 만든 결과물은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에 게시되지는 못했다. 만약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만든 결과물을 특정 장소, 행사에 게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단체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다. 이 과정을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면 문제해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진연자 경기신곡중 과학 교사(올해 2월까지 경기 송내중앙중에서 근무)



**거꾸로 교실 도전하기**

자유학기제를 발판삼아 학교 수업은 변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이 주체가 돼 수업을 이끌어어나가는 '거꾸로 교실'은 학생 중심 수업의 대표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있지요. 이 코너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거꾸로 교실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참신하고 유익한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도 들어봅니다.

**이수연 충북 충주북여중 영어 교사의 거꾸로 교실**

# 절대 잊혀지지 않는 '영어송'으로 영어문법 꼭잡기!

충주북여중 학생들은 1학년 때 배운 영어의 품사 개념을 3학년이 되어서도 그대로 쫓아온다. 여럿이서 똑같은 내용을 외우는 이른바 '떼창'도 가능하다. 품사를 다름 아닌 '노래'로 배웠기 때문이다. 이수연 충주북여중 영어 교사는 직무연수를 통해 노래로 영어를 가르치는 선배 교사의 사례를 접한 뒤, 자신의 수업에도 노래를 접목했다. 주로 품사, 조동사, 관계대명사처럼 처음 배울 때 확실히 알아두지 않으면 계속 고생하는 개념, 중학교 3년에 걸쳐 반복해서 등장하는 어려운 개념들이 노래의 대상이 되었다. 노래의 힘은 역시나 놀라웠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도 노래를 통해 입으로, 몸으로 반복해 익히다 보면 결코 쉽게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 이 교사는 "노래를 활용한 기본 수업 포맷을 정해놓고, 학년에 따라 울동을 창작해보거나 협동 학습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주해 지난 3년간 다양하게 시도해봤다"면서 "1학년 때 가르친 학생들이 3학년이 되어서도 품사송을 잊지 않고 부르는 것을 보면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2 Stay 2 Go 활동을 통해 자신이 이해한 것을 다른 학생에게 알려주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충주북여중 제공

**수업 개요**

교과	영어	학기	구분 없음	차시	2~3차시
단원	제한 없음				
주요 핵심성취기준	단원에 따라 다름				
수업 내용	기본 포맷		발전 포맷		
	1. 디딤 영상 바탕으로 '영어송' 노래 가사 익히고 외우기 2. 가사에 맞는 울동 창작하기 3. 안무 발표회 및 평가		1. 디딤 영상으로 단원 주요 내용 학습하기 2. 모둠별로 학습 내용을 요약한 가사 창작해 노래 만들기 3. '2 Stay 2 Go'로 협동해 문제 풀기		

※이 교사의 영어송을 활용한 거꾸로 교실은 학습 주제나 학년에 따라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뉜다. 자유학기제가 적용되는 중1을 대상으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개념을 다룰 때는 영어송을 익히면서 이에 따른 울동을 창작·발표하는 수업을 진행했다. 반면 중2~3을 대상으로 다소 어려운 개념을 다루는 경우 가사를 창작해 영어송을 만들어 보되, 이 과정에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 예제를 협동해 풀어보는 것에 더 중점을 뒀다.

▼디딤영상

차시	1	2	3
수업	디딤 영상 바탕으로 개념 학습하기	영어송 바탕으로 개념 익히기·암기하기	마무리 학습 (발표회/학습지 풀이)

※ 디딤영상이란? 거꾸로교실에서 진행될 수업의 핵심 내용을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가 사전 혹은 사후에 제공하는 학습 보조 영상.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세요**



QR코드를 스캔해 실제 수업에 활용된 디딤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 1차시 수업 전에 디딤 영상을 미리 보고 올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한다. 디딤 영상은 음성변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교사가 직접 녹음한 '품사송'이다(QR코드 참조).

**[1차시] 품사송의 가사를 맞혀라!**

학습지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디딤 영상만을 보고 품사송의 가사를 맞혀보도록 한다. 디딤 영상에 등장하는 품사송은 음성이 변조되어 있고 다소 빠르게 녹음돼, 학생들이 단번에 알아들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학생들은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며, 모둠별로 상의해서 가사를 추측해 본다.

모듬별로 상의할 시간을 어느 정도 준 후에는 학습지를 나눠주고 풀어보게 한다. 학습지는 디딤 영상에 등장하는 품사송의 가사에 빈 칸을 낸 것으로, 학생들은 앞서 상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빈 칸을 채워 넣는다. 잘 안 들리는 부분은 디딤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채워 넣는다.

**거꾸로 교실 도전하기**

거꾸로 교실을 직접 기획·지도한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거꾸로 교실 운영 노하우를 살펴본다.

## “즐거우면서도 유익한 수업, 고민한 결과죠!”



이수연  
충북 충주북여중 영어 교사

**Q. 수업에 노래를 접목하게 된 계기는?**

학생들이 영어 시간을 떠올렸을 때 지겹거나 어렵다는 생각 대신 '오! 다음 시간 영어 수업이야?'하는 설렘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평소에도 갖고 있었다. 지식 전달이라는 수업 본연의 목적을 잃지 않으면서도 즐거운 수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직무연수를 통해 영어 수업에 노래를 접목한 선배 교사의 사례를 접하게 됐다. 내 경험을 돌이켜봐도 음악으로 배웠던 것은 쉽게 잊지 않았었는데, 노래를 통해 문법을 배운다면 어려운 내용도 쉽고 재밌게 익힐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 후 3년째 영어송 수업을 이어오고 있다. 실제로 1학년 때 배운 품사송

을 잊을 법도 하건만 3학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기억하고 흥얼거리는 학생들을 보면 학습 효과만큼은 탁월한 듯 하다.

**Q. 영어송의 소재를 고른 기준은?**

영어송의 학습 효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한 학기, 한 학년 모든 수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학생과 교사 모두 에너지 소모가 클 수밖에 없다. 결국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동시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고생하는 파트 위주로 소재를 골랐다. 중1의 경우 학생이 처음 접하게 되는 '품사'의 개념이 그런 예였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여러

단원에 걸쳐 배우게 되는 조동사나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관계대명사, 분사구문 등도 영어송 수업의 대상이 됐다.

**Q. 품사송을 직접 녹음했는데?**

품사송 자체는 따로 만든 것이 아니다. 유튜브에 이미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올려두신 품사송 노래 영상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도 괜찮다. 다만, 나의 경우 직접 노래를 부르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음성을 변조해 제공했다. 이렇게 음성변조를 함으로써 가사 빈 칸 채우기의 난도는 더 높아졌다. 한 번 들어서는 가사를 쉽게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교

〈품사송 학습지의 예시〉

※ 품사송의 가사를 완성하세요.

Verse1	Verse2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 (연결)을 해주는 (접속사) (장소), (방향), (시간)앞에 (전치사) (아)! 쉽구나! (감탄사)

학습지를 모두 완성한 후에는 모둠별로 가사를 외우는 시간을 갖는다. 교사가 모둠별로 대표자 한 명씩을 지정해 가사를 모두 암기했는지 확인함으로써 1차시 수업은 마무리 된다. 이처럼 품사송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각 품사의 특징을 간략하게 노래로 배울 수 있다.

[2차시] 가사에 맞는 울동을 만들어라!

모둠별로 품사송의 울동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다. 모둠원 각자가 품사송의 한 부분을 맡아서 가사에 꼭 맞는 울동을 만든다. 총주북여중의 경우 한 모둠이 4명으로 구성되었는데, 품사송의 가사가 모두 8줄이어서 한 사람당 2줄씩 맡아서 안무를 만들었다. 각자 안무를 만든 후에는 모둠원끼리 공유해 전체 가사의 울동을 완성했다.

울동을 만들 때는 최대한 가사의 특징을 잘 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연결을 해주는 접속사'와 같은 가사에선 옆에 친구와 손을 잡는 안무를 만드는 것이다. 1차시 수업을 통해 이미 품사송을 모두 외운 상황이지만, 직접 울동을 만들어보는 2차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품사송의 내용을 몸으로 한번 더 이해하고 외우게 된다.

[3차시] 안무 발표회

모둠별로 완성된 안무를 학급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이다. 학생들은 다른 모둠의 발표를 보면서 안무 영역, 창작 영역 등 세부 기준에 따라 동료평가를 진행한다. 모든 모둠의 발표가 끝나면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취합해 최고의 모둠 한 곳을 뽑은 뒤, 잘한 점에 대해 교사가 피드백을 해주면서 수업을 마무리한다.

🎵 '영어송' 수업 포맷을 활용해 수업 발전시키기

조동사, 관계대명사, 분사구문 등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어 문법 개념을 영어송 포맷을 활용해 보다 쉽고 재밌게 가르칠 수 있다. 다만 품사를 익히는 수준을 벗어나 보다 고차원의 문법 개념을 가르칠 때는 울동 창작 파트를 제외하고, 동료학습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1차시 수업 전에 디딤 영상을 미리 보고 올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한다. 디딤 영상은 단원의 주요 학습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한 강의식 영상으로 준비한다.

[1차시] 디딤 영상 학습하기

디딤 영상을 보고 오지 않은 학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디딤 영상을 보면서 오늘 배울 개념의 주요 특징을 학습한다. 앞서 품사송 수업과 달리 조동사, 관계대명사, 분사구문 등 다소 어려운 문법적 개념을 익혀야 하는 수업에서는 수업 전 디딤 영상을 보고 오는 것만으로 기초 학습을 대체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 더욱이 학생마다 이해의 정도가 다르고, 주제에 따라서는 디딤 영상만으로 내용을 모두 다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수업 시간에 디딤 영상을 보면서 오늘 학습할 주요 내용과 개념에 대해 교사가 한 번 더 짚어주는 것이 좋다. 1차시 수업은 디딤 영

상의 내용을 갈무리한 간단한 학습지를 풀어봄으로써 수업을 마무리한다.

[2차시] 영어송 가사 만들기

디딤 영상에서 배운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조동사송'과 같이 문법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영어송을 만들어 본다. 품사송과 달리 이번에는 학생들이 직접 특정 동요를 고르고 그 동요의 가사를 개사해 노래를 만든다. 동요를 선정할 때는 다른 모둠 학생도 모두 알 수 있는 잘 알려진 동요를 선택하도록 지도한다.

가사를 개사할 때는 교사가 제시한 문법상의 특징(2~3가지)이 가사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만드는 것이 조건이다. 모두 완성되면, 모둠별로 만든 영어송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가장 잘 만든 모둠을 뽑아 그 가사를 학급 게시판 등에 붙여준다.

※ 관계대명사와 같이 중요도가 높고 학생들에게 생소한 개념을 소재로 할 때는 아무리 조건을 달더라도 학생들에게 가사를 개사하도록 시키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교사가 직접 해당 개념에서 꼭 알아야 할 주요 특징을 담아 가사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생들은 이를 외우고 익히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3차시] 학습 예제 풀이

교사는 앞서 영어송으로 만든 문법 개념을 활용한 예제를 여러 개 준비한 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모둠별로 풀어보게 한다. 모든 모둠이 다 같은 문제를 풀지는 않으며 문제는 분담해서 푼다. 1번 문제는 1조와 4조가, 2번 문제는 2조와 5조만 풀어보는 식이다. 모둠별로 1개 문제만 푸는 대신 각 모둠이 맡은 문제에 한해서는 그 모둠이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풀이를 해야 한다.

모둠 내 문제 풀이가 끝나면 모둠의 대표자가 한 명씩 나와 교사에게 자신들의 풀이가 맞는지 중간점검을 받는다. 이때, 같은 문제를 푼 조끼리 동시에 검사를 받는다. 같은 문제에 대한 두 모둠의 설명이 다를 경우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개념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는다. 문제 풀이를 잘못했던 모둠의 대표자는 자신의 모둠으로 돌아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반드시 모둠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든 모둠이 맡은 문제를 완벽히 풀이하는데 성공했다면, 이어서 '2 Stay 2 Go(둘 가고 둘 남기)' 활동을 진행한다. 모둠원 4명 중 자신들의 모둠에서 맡은 문제를 설명할 2명은 모둠에 남아서 자신의 모둠을 찾아온 친구들에게 문제를 풀이해주고, 나머지 모둠원 2명은 다른 모둠을 돌면서 다른 문제에 대한 풀이를 듣는 것. 일정 시간 후에 설명해주는 사람과 설명을 듣는 사람의 역할을 바꿔 한 번 더 '2 Stay 2 Go'를 진행한다. 이 활동을 통해 교사가 준비한 모든 예제에 대한 풀이를 전체 학급 학생들이 모두 공유함으로써 수업을 마친다.

평가는 이렇게 하세요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결과물을 내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수업의 한 형태이므로, 이 수업 활동 자체에 대한 별도의 평가는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울동 만들기나 가사 창작하기 활동 등에서 특기할 만한 점이 있는 학생들은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해주었다.



**교과서 개념 이해부터 시험 대비까지 완벽하게!**

개념 잡고 성적 올리는 필수 개념서  
국어 | 영어 | 수학 | 사회 | 역사 | 과학

Mirae N 에듀

미래교실네트워크([www.futureclassnet.org](http://www.futureclassnet.org))에서 더 다양한 거꾸로 교실을 만나 보세요.



사가 직접 녹음한 것이란 사실을 알아채면서 학생들이 영상에 더 흥미를 느끼게 되는 점이 녹음의 더 큰 효과라고 본다.

Q. 학년, 소재에 따라 수업방식을 달리 한 이유는?

관계대명사, 분사구문 같은 개념은 강의식으로 설명해줘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다. 물론 영어송 가사를 만들다 보면 어느 정도 기본 개념 학습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 심화학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1학년과 달리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선 울동 창작 대신 2 Stay 2 Go와 같은 동료학습 파트를 강화했다.

동료학습만으로도 어려운 개념을 소화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서로간의 동료 학습을 통해 학

생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해한다. 특히 자신이 이해한 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해 내는 메타인지능력을 기르게 된다.

Q. 동료학습의 또다른 효과는?

'2 Stay 2 Go'와 같은 동료학습에선 학생들끼리 서로 묻고, 가르쳐주는 일련의 과정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다.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모르는 것을 물어본다는 것에 대한 창피함이 사라진다. 반대로 더 잘 안다고 해서 으스스대거나 잘난 척하는 일도 없어진다. 대신 잘 모르는 친구에게 하나라도 더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인다. 자연스럽게 서로 도와가며 함께 성장해가는 분위기가 조

성되고,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이 향상된다.

Q. 제한

2 Stay 2 Go 활동의 경우, 처음에는 학생들이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을 다소 낯설어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좋다.

만약 바로 시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처음부터 모둠별로 나눠서 하지 않고, 개념을 잘 알고 설명도 잘 하는 학생 5~6명을 뽑아 이들을 호스트로 내세운 후 이들에게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호스트가 설명하는 방식이나 과정을 학급 모두가 경험해보게 한 후 다음 수업에서 모둠별 2 Stay 2 Go 활동을 시도해보는 것이다.

교사-학생이 함께하는 수업 혁신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수업 혁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이 늘어나면서 수업 혁신의 방식도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지요. 이 코너에서는 하브루타(chavruta), 비주얼 씽킹(Visual Thinking), 소프트웨어(software) 교육 등의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혁신해나가는 교사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을 들어봅니다.

11월호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비주얼 씽킹 수업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비주얼 씽킹은 생각과 정보를 글과 도형, 기호, 화살표 등을 활용한 시각적 표현으로 체계화하는 공부법입니다.

글쓰기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인 학습 활동이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본 경험이 적은 중학생들에게는 부담이 큰 활동이기도 하다. 원하는 바를 글로 제대로 드러내지 못해 느끼는 답답함으로 인해 글쓰기를 싫어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이지영 대구 화원중 국어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특정 주제를 깊이 탐구하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도록 국어 교과에 비주얼 씽킹을 접목시켰다.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 '으랏차차 비주얼 씽킹 그림책 제작반'을 기획해 17차시에 걸쳐 학생들에게 그림책을 제작하도록 한 것. 비주얼 씽킹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이미 지나 글로 표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으랏차차 비주얼 씽킹 그림책 제작반'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한 뒤 비주얼 씽킹을 활용해 스토리를 구상했다. 이후 완성된 스토리 계획서를 바탕으로 그림책을 제작하고, 자신의 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사는 "비주얼 씽킹을 활용한 덕분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시각화할 수 있어 글쓰기에 대한 부담은 낮추고, 글감은 풍성하게 만들 수 있었다"며 "학생들은 자신이 생각한 바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며 창의성을 기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따로, 또 함께 만드는 그림책으로 학업역량↑

그림책을 제작하기에 앞서 이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그림책과 PPT 자료를 살펴보았다. 글과 그림이 어우러졌을 때 자신의 생각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을 인지시키며, 추후 이어질 그림책 제작에

대구 화원중 이지영 교사의 비주얼 씽킹 수업  
창의력은 높이고  
진로탐색은 덤으로

대한 흥미를 복돋은 것.

비주얼 씽킹의 효과를 살핀 후에는 본격적인 그림책 제작 활동이 진행된다. 먼저, 학생들은 자신이 다루고 싶은 주제를 몸으로 표현하는 1분 말하기 활동을 실시한다. △우정 △학교폭력 △가족 △아이돌 등 자신과 주변인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제시됐다. 이후 자신과 비슷한 주제에 흥미를 보인 친구를 찾아 2인 1조로 모둠을 구성한다.

비주얼 씽킹은 스토리구상 단계에서 활용됐다. '왕따 문제를 주제로 작품을 구상한 한 모둠은 버블맵을 활용해 그림책 계획서를 작성했다. 4절지를 반으로 접은 뒤 왼쪽면 가운데에 작게 원을 그린 다음 '사건'이라는 글자를 적은 뒤 외곽으로 가지를 여러 개 그리고 스토리 전개에 필요한 핵심사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 오른쪽 면에는 작품의 주요 공간적·시간적 배경을 글로 적었다. 그림책 구성에 필요한 인물과 사건, 배경, 줄거리 등을 설정한 것이다. 이후 해당 내용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피드백을 받아 수정을 거친 뒤 최종 스토리를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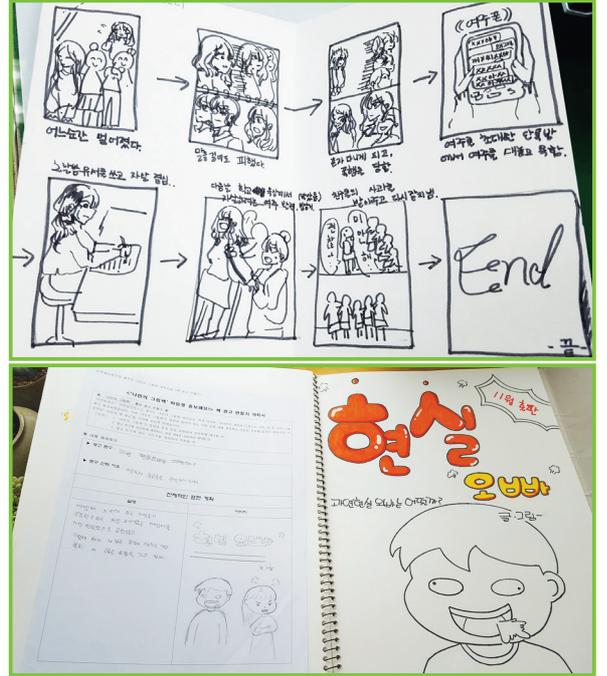
이 교사는 "작품의 주된 시간적, 배경적 공간을 꼼꼼하게 설정하면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데 효과적"이라며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발표하고, 친구와 스토리를 구상하며 국어 교과의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역량을 고루 기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스토리 구상은 짝과 함께 진행했지만 동화책은 개별적으로 제작한다. 즉, 동일한 스토리를 가진 2개의 작품이 탄생하는 것. 이 교사는 "자신의 결과물에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닫도록 스케치북에 그림책을 개별적으로 만들도록 했다"며 "모둠활동과 개별활동을 종합한 덕분에 협업능력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동시에 기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책 홍보 포스터 제작으로 진로탐색까지

이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이 제작한 그림책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며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나만의 동화책 홍보광고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나만의 그림책의 장점과 특징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비주얼씽킹으로 표현한 그림책-광고계획서 및 광고포스터. 화원중 제공

참신한 광고 문구 △광고문구에 맞는 이미지 등의 요소를 포함한 광고 계획서를 작성하고, 책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다. 이어 완성된 포스터를 함께 살펴보고 가장 재미있을 것 같은 작품에 투표를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투표한 책을 읽으며 스케치북 뒤에 마련된 서평 작성 공간에 피드백을 남겼다.

책 광고 포스터를 제작하며 효과적으로 타인을 설득하려면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으며, 친구들의 피드백을 통해 작품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교사는 "학생들은 그림책을 제작하며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웹툰 작가, 광고기획자 등의 진로도 탐색했다"며 "간접적으로 진로를 체험하고, 스토리 구성을 통해 변화하는 삶의 모습을 살피며 국어 교과의 학습의 목표인 '삶의 가치'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교사의 수업지도 노하우

“교사의 피드백으로 글쓰기, 그림 그리기에 대한 부담 낮춰야”

Q. 수업 운영 시 유의할 점은?

효과적인 수업 진행을 위해 전체적인 수업과정을 탄탄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가 사전에 기본적인 비주얼 씽킹 이론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비주얼 씽킹이 수업의 어떤 단계에 활용되고, 역량 발달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파악해야 수업 진행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어려워 할 수 있으므로, 교사가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비주얼 씽킹의 핵심은 학생들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있지만, 그림책을 제작하는 활동만큼 그림의 완성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샘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학생들은 자료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해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

Q. 수업의 효과는?

시의 등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교사로서 '학생들이 현재 배우는 지식이 미래에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에 대한 고민이 깊다. 그런데 학생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이를 비주얼 씽킹으로 표현해보는 그림책 제작 활동은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기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학생들은 글쓰기, 그림 그리기 과정에서 창의력을 기를 수 있으며, 친구와 함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협업능력도 키울 수 있다.

Q. 이 수업을 활용하려는 교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17차시 분량의 수업에 비주얼 씽킹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항

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수업 시간 조절에 유의해야 한다. 학생들이 6차시 안에 그림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부 학생은 '짝과 함께 스토리를 구상했는데 그림책은 왜 개별적으로 제작해야 하느냐'며 당혹스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따라서 교사가 협력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산출물을 만들도록 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완성된 작품이 학기말에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됨을 안내하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자신이 만든 작품에 뿌듯함을 느끼며 작품 전시회에 친구를 데려와 자랑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지영 대구 화원중 국어 교사

영상으로 배우는 영어

영어를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학생들의 흥미도 잡고 학습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지요. '재미'와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영어 수업. 영상을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영어 수업에서 영상을 활용해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 교사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도 들어봅니다.

서울 문성중 고은별 교사의 영상을 활용한 영어 수업

# 가수 BTS의 연설영상이 훌륭한 영어수업교재로



영상 시청 후 빈칸 채우기 활동을 수행하는 학생들의 모습. 문성중 제공

“Today, I am who I am with all of my faults and my mistakes(오늘의 결점 많고 실수하는 나도 나입니다).”

서울 문성중 영어 수업 시간. 학생들은 교과서 대신 지난 9월 미국 뉴욕 UN(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니세프 행사에서 진행된 방탄소년단(BTS)의 연설 영상을 시청한다. ‘Love yourself’라는 주제의 연설 영상을 시청하며 수업시간에 배운 주요 문법 개념을 복습하는 것은 물론 자존감도 회복한다.

고은별 서울 문성중 영어 교사는 시험 직후 영어 수업시간에 중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탄소년단의 유엔 연설 영상 및 해외의 유명 팝가수의 뮤직비디오 영상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영어 연설과 팝송을 듣고 활동지의 빈칸을 채우며 주요 문법을 복습하고, 시청한 영상에 대한 감상을 공유하거나 영어 노래를 따라 부르며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였다. 이 수업을 기획한 고교사에게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는지 묻고 들었다.

## 지루한 교과서 대신 가수 영상으로 학습의욕 UP

중간·기말고사 직후 수업시간은 시험 준비에 학습의욕을 소진한 학생

들로 인해 교실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학습동기가 약해진 이 시기, 무작정 교과서 진도를 나가면 학생들은 수업에 더욱 흥미를 잃기 쉽다. 이때는 가벼운 활동중심의 수업으로 분위기를 전환하고, 학습의지를 북돋는 것이 효과적.

고 교사가 시험 직후 수업시간에 가수 영상을 활용한 활동을 진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가수 영상을 수업에 활용하면 시험이 끝난 후 잊어버리기 쉬운 영어 개념을 재미있게 복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소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의 콘텐츠도 내용을 유심히 살피며 깊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BTS 유엔 연설을 활용한 영어 수업은 1차시 동안 진행됐다. 학생들은 먼저 한글 자막과 함께 7분 분량의 연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했다. 자막과 함께 영상을 보며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것. 그 후 교사와 함께 연설에 활용된 주요 단어를 학습한 후 연설의 핵심 주제를 다룬 부분을 반복해 들으며 활동지의 빈칸을 채웠다. 이를 통해 △5형식 문장 △복합관계부사 △관계대명사 등의 문법개념을 복습하고, 핵심 문장을 스스로 해석해보며 영어 의의가 듣기·독해 실력을 길렀다.

고 교사는 “교과서에는 문법의 용례를 보여주기 위해 연관성 없는 문장이 분절적으로 등장하지만 연설문은 여러 문장이 모여 하나의 핵심 주제를 전달하기 때문에 문법개념을 실제적으로 학습하기에 용이하다”며 “수업에서 배운 표현이 일상생활에 실제로 쓰이는 것을 보자 학생들이 영어학습에 흥미를 보였다”고 말했다.

BTS 유엔 연설 영상은 인성교육에도 효과적이다. 고 교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고 전하는 연설의 메시지를 학생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단점, 부끄러웠던 과거 모습을 발표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했다. 학생들은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살펴보고자 자존감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 교사는 “연설 내용을 유치하게 여기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좋아하는 가수의 입을 통해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으니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며 “개인을 존중해야 하며,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 영상을 활용한 덕에 자살예방방지기세기민교

육도 실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영어에 등 돌린 학생도 일으켜 세우는 팝송 영상

학습 의지가 최저치에 달하는 학기말 수업시간에는 팝송 영상을 활용한 수업이 제격이다. 스토리 중심의 뮤직비디오는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팝송의 신나는 멜로디는 자연스레 영어를 흥얼거리도록 해 학습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고 교사는 △머라이어 캐리 ‘All I Want For Christmas’ △원 디렉션 ‘What Makes You Beautiful’ △찰리푸스 ‘One Call Away’ 등의 뮤직비디오를 수업에 활용했다.

해당 수업 역시 뮤직비디오를 감상한 후 노래를 반복해 들으며 활동지의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고 교사는 학생들이 문법을 좀 더 재밌게, 실제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팝송의 가사를 예시로 제시했다. 가령 ‘What Makes You Beautiful’을 통해 관계대명사 ‘what’을 학습할 때에는 브루노 마스의 ‘That’s What I like’ 등의 가사를 제시하고 해당 노래를 간단히 들려준 것.

고 교사는 “새 팝송을 알게 된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 직접 영상을 찾으며 노래를 듣기도 했다”며 “평소 영어에 자신 없어하던 학생들도 한국어 발음을 가르쳐달라고 찾아오는 등 영어공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팝송을 통해 서양의 문화적 특징도 이해할 수 있었다. 고 교사는 “All I Want For Christmas’에는 Fireplace(벽난로), Mistletoe(덩굴식물) 등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온돌문화가 없는 서양에서는 지금도 난방을 위해 벽난로를 사용하며, 크리스마스하면 트리를 떠올리는 우리와 달리 미국에서는 Mistletoe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교사의 수업지도 도움말

### “학습수준에 맞춰 적정수준의 학습량 설정해야”

Q. 수업을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은?

학습 분량에 지나치게 욕심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초기에 팝송 영상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할 때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더니 학생들이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팝송이던 연설문이던 학생들의 학습수준 혹은 수업 기획의도에 맞춰 핵심적인 부분만 해석하도록 하는 게 좋다. 그래야 학생들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용이하다. 또한 학생들에게 활동지를 제공할 때에는 시각적인 요소도 고려해 내용을 구성해야 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첨부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주는 것이 좋다.

Q. 수업의 효과는?

방학만을 간절하게 기다리던 학생들이 시험 이후에 진행되는 영어수업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영어에 자신감이 없는 일부 학생은 수업 진도를 나갈 때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곤 했지만, 영상을 활용한 영어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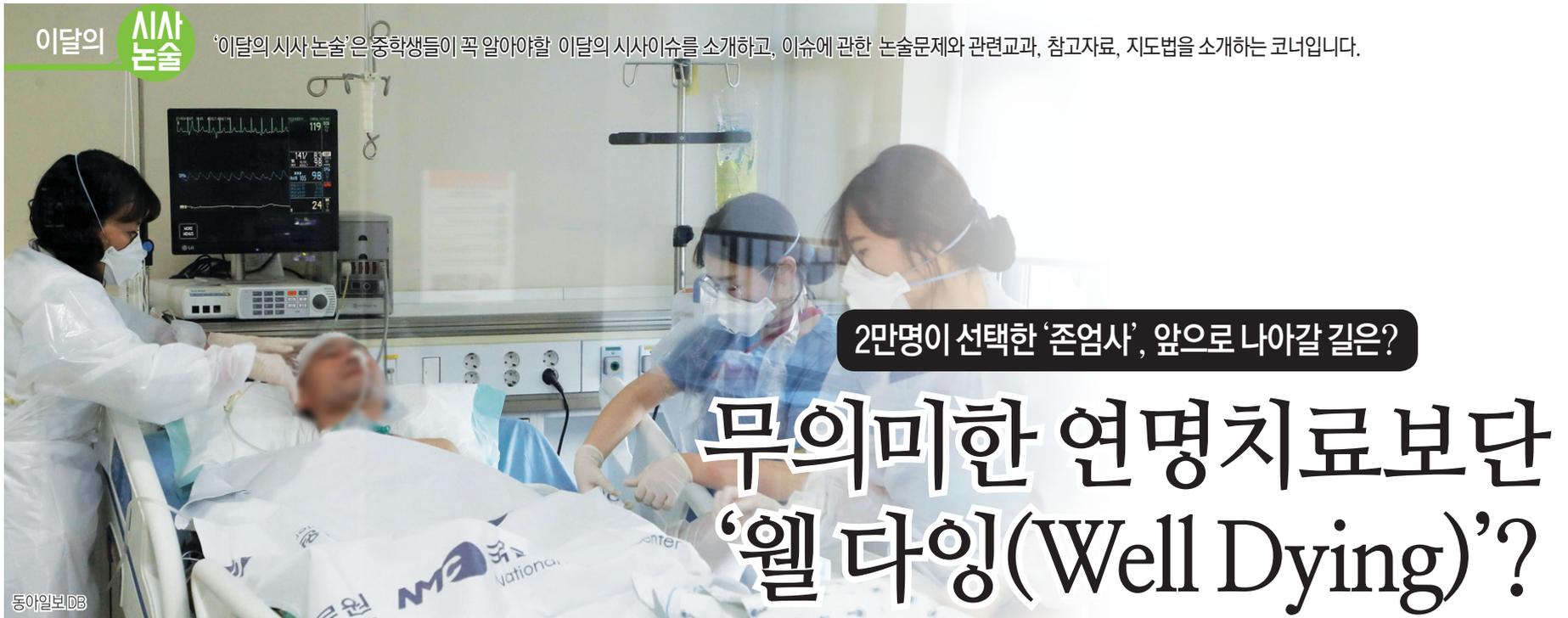
학생들이 영어 학습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교과서를 활용해 진도만 나가더라도 영어에 흥미를 잃어버렸을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100% 따라오지는 못하더라도 재미있게 참가하며 영어에 대한 거리감을 좁힐 수 있었다.

Q. 영어수업에서 영상을 활용하려는 교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기본적으로 교사가 매체에 관심이 많아야 한다.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영상이나 영화, 음악을 보고 들을 때 수업에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영어 영상을 수업에 틀기에 앞서 첨부된 끝까지 내용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서양의 문화가 개방적이다 보니 12세, 15세 관람가 영상이더라도 다소 선정적인 장면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장면을 미리 교사가 파악하고 해당 장면을 피해 보여 주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고은별 서울 문성중 영어 교사





이달의 **시사  
논술**

‘이달의 시사 논술’은 중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이달의 시사 이슈를 소개하고, 이슈에 관한 논술문제와 관련교과, 참고자료, 지도법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2만명이 선택한 ‘존엄사’, 앞으로 나아갈 길은?

# 무의미한 연명치료보단 ‘웰 다잉(Well Dying)’?

이른바 ‘존엄사법’이라고도 불리는 ‘연명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기로 한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위중한 질병 등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연명치료를 유보(연명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고 있던 연명치료를 그만두는 것)한 환자가 존엄사법이 시행된 지 8개월 만에 2만 7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됐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4가지 의료행위의 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환자가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

시행 8개월 차를 맞은 존엄사법의 현재 상황을 짚어보며 존엄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고, 앞으로 존엄사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어떤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지를 생각해본다.

## “임종문화 변하는 중” vs “환자가 직접 결정한 경우는 낮아”

이번 발표 이후 의료계에선 기계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마지막을 맞이하려는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무의미하게 목숨을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택해 존엄하게 일생을 마치는 방향으로 임종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것. 죽음을 대하는 우리사회의 인식이 서구권과 달라 존엄사법 시행에 20년이 걸렸지만 막상 시행이 본격화 되자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임종문화가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존엄사법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직 멀었다는 주장도 있다.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기로 결정한 환자 2만 742명 중 환자 자신의 병이 위중해진 뒤 직접 의료진과 상의해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는 6836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그

밖에 전체의 66.3%를 차지하는 1만 3752명은 환자가 위중해진 뒤 환자 본인의 의지가 아닌 가족이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였던 것. 환자가 직접 자신의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는 154명으로 전체의 0.7%에 불과했다.

국내의 한 의대 교수는 “2만여명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99.3%의 환자는 환자가 위중해진 뒤에야 환자 혹은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존엄사가 자리 잡았다고 하기엔 아직 부족한 숫자”라며 “특히 전체의 3분의 2 가량은 의식이 없는 환자를 대신해 가족이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아직 존엄사법이 가야 할 길은 멀었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 노인 5명 중 4명은 존엄사 찬성... ‘웰 다잉(Well Dying)’ 관심 ↑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명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아직 보완해야 할 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존엄사법이 시행된 이후 최근 8개월 간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 수에서 확인할 수 있듯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 또한 사실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발표한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11월 노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노인의 83.1%가 존엄사를 찬성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 5명 중 4명이 넘는 인원이 연명치료 대신 존엄사를 택할 것이라는 응답을 한 것. 인권위는 “무리한 연명치료로 의료비 등 가족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는 걸 원치 않는 노인들이 많아졌다고도 볼 수 있다”면서 “특히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존엄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의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 정서상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환자에게 더 이상 치료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리였던 탓에 존엄사법 도입에만 해도 실효를 거두기까지 상당한 시일

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각종 통계자료를 보면 ‘웰 다잉(Well 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 연명치료 중단 동의를 위한 가족 범위 축소, 인프라 마련 절실

‘연명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실효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어떤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까? 웰 다잉(Well Dying)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선 현실과 동떨어진 까다롭고 복잡한 규정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자가 위중한 상황일 때는 연명치료 중단에 가족 동의를 필요한데, 이 가족의 범위를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가족 동의를 위해서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가족 전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동의가 필요하다. 고령 환자의 경우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심수명의 가족 전원의 사인을 받아야 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현장에서 심심찮게 벌어진다. 한 전문가는 “가족의 범위를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간소화하거나 미국처럼 법정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사항을 환자에게 고지할 때는 의료진의 역할이 중요한데,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현장 경험이 없거나 사전교육을 안 받은 의사도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존엄사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종 의료 인프라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의 또 다른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말기 암 환자의 10%만이 호스피스 시설을 이용하는데, 다른 선진국들은 50%가 넘는다. 뿐만 아니라 전국 요양병원의 99%는 연명치료 중단 결정 기구인 병원윤리위원회가 없어 존엄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어렵게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 김재성 기자 kimjis6@donga.com

## 생각해볼 문제

1.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정리해보자.
2. 인간의 생명에 대해 법의 강제력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토의해보자.
3. 나라별 장례문화의 특징을 찾아 비교해보고, 존엄사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설명해보자.

## 교과서 찾아보기

사회 ① 11-1. 법의 의미와 목적  
사회 ① 8-2.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 참고자료

영화 ‘미 비포 유(Me Before You)’, 2016

## 지도법

학생들은 존엄사법을 통해 인간의 권리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의 가치충돌 문제를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하다보면 놓치는 가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기견 안락사와 인간 존엄사 등으로 존엄사 대상을 달리해 토의를 진행하면 학생들이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고, 가치문제가 진정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공감적 이해가 동반되어야 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어 ‘나 혹은 가족이 존엄사의 대상이라면?’ ‘내가 의사라면?’ 등 다양한 역할과 입장에 따라 시나리오를 작성하며 존엄사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해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각 나라의 존엄사 제도를 탐색해보면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우리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 등을 다각도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를 짚어본 후 두 가지 모두를 허용한 나라의 제도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존엄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심재희 충남 원이중 사회 교사





달라진 수업 고민에 '퍼실리테이션' 해답으로 내놓는  
백수정 인팩트러닝 공동대표

# 학생참여수업, 왜 마음처럼 안 될까? “교사 아닌 ‘촉진자’ 되세요”

백수정 인팩트러닝 공동대표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중 하나는 ‘다양한 관점을 명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라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의견 그 자체를 높이 사주면,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는 성공의 경험을 맡겨짐 삼아 분명히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초대석

교육계 주요 인사 혹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교육 철학을 들여보며 앞으로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도입 이후 학교 현장에선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이 줄어들고, 학생이 직접 활동에 참여하며 스스로 학습을 일궈나가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 수업의 형태가 바뀌면서 교사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과거, 교사는 ‘지식 전달자’로서 수업의 핵심 주체였지만, 이제는 수업의 주인 자리를 학생에게 내주고 한 발 물러서서 수업의 올바른 운영을 유도하는 ‘길잡이’ 역할에 집중한다.

역할이 바뀌면서 교사의 고민도 달라졌다. 이제 교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보다 ‘어떻게 학생들이 참여(학습)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한다. 최근 지역교육청들이 교사를 대상으로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관련 연수를 적극 마련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 흔히 회의나 토론에서 주로 접목되는 개념인 퍼실리테이션은 쉽게 말해 구성원들이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돕거나 촉진, 안내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담당하는 ‘촉진자’가 바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다.

학생 참여 수업에 필요한 것은 교사가 아닌 촉진자다. 하지만 여전히 촉진자라는 새로운 역할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이 있다. 수업의 ‘좋은 촉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 퍼실리테이터이자 교육학적 관점에서 퍼실리테이션의 활용법을 연구하는 백수정 인팩트러닝 공동대표를 만나 그 답을 들었다. 백대표는 최근 서울시교육청, 인천교육연수원 등에서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을 맡아 가르친 바 있다.

## 교사와 퍼실리테이터, 어떻게 다른가

우선 퍼실리테이션의 개념부터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백대표는 “퍼실리테이션은 그 자체로 어떤 실체를 가진 콘텐츠나 내용이 아니라 본래 목적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도구이자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이를 수업으로 옮겨보면, 수업 본연의 목적인 ‘지식의 습득’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수업 구조를 설계하고, 이것이 잘 운용되도록 중간에서 안내·조율하는 것을 말한다.

수업을 퍼실리테이션하는 것은 수업을 이끌어가는 것과는 분명

히 다르다. 퍼실리테이터는 수업 중 나서서 무언가를 가르쳐야 할 일이 없다. 백대표는 “퍼실리테이터는 수업의 내용(What)이 아니라 수업의 방법(How)을 고민한다. 예컨대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때는 이런 도구를 써서 브레인스토밍을 촉발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는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면 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구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서 “흔히 퍼실리테이터를 가이드에 비유하곤 하는데 직접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만 안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대표는 교사와 퍼실리테이터를 구분 짓는 간단한 기준을 제시했다.

“만약 수업의 주도권이 교사에게 있다면, 그 수업에서 교사는 퍼실리테이터가 아니라 여전히 교사일 겁니다. 수업의 주도권이 학생에게 있을 때 그 교사를 비로소 퍼실리테이터라고 볼 수 있죠.”(백대표)

## ‘가르쳐야만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교사에게 퍼실리테이터로의 변신은 결코 쉽지 않다. 학생 참여 수업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지금 당시에 많은 교사들이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다. 아직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지 못한 교사들도 학생에게 온전히 수업을 맡겨도 되는지, 기대만큼 학생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지, 교사는 과연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이에 백대표는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교사가 아닌 퍼실리테이터가 되겠다’는 철학부터 확고히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백대표는 “수업의 목적이 학생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퍼실리테이터는 그 목적에만 충실해야 한다”면서 “서로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든 노래를 하든 방법이야 어떻든 간에 학생들이 그 지식을 체득하면 되는 것이지, 그 지식을 꼭 교사가 가르쳐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교사가 수업에 더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학생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은 좁아지게 되고, 참여도가 저조해지면 수업의 재미와 효과 모두 놓치게 된다.

더불어 학생에게 수업을 맡기는 것을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교사의 강의가 학생에게 더 유용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아는 것보다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자신의 지식을 꺼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계에서 퍼실리테이션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데 강의보다는 퍼실리테이션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백대표)

## 참여에 소극적인 학생들? 교사부터 바뀌어야

그렇다면 성공적인 퍼실리테이션을 위해 퍼실리테이터, ‘촉진자’가 지녀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일까. 백대표는 ‘구성원에 대한 믿음’과 ‘중립성’을 꼽았다.

수업에서 믿음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직결된다.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본인이 ‘존중받고 있다’란 느낌을 받을 때야말로 수업 참여 동기가 극대화되는 순간이다. 백대표는 “교사 스스로 ‘학생들은 충분히 현명하며, 적절한 도구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고, 그 안에서 배움을 발견할 것이다’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촉진자로서 편견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유도 질문도 같은 맥락에서 피해야 한다. 이 부분은 특히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가르치는 것에 익숙한 교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백대표는 “예를 들어 A와 B라는 생각이 있다고 할 때, 교사가 이미 A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기운 상황에서는 아무리 학생이 B를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기 마련”이라면서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B가 아닌 이유를 계속 떠올리게 되고, 학생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건 이래서 아니야’라는 반박부터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거절과 불수용의 경험은 학생들의 심리 기저에 축적돼 자신의 의견을 꺼내기 주저하는 성향으로 이어진다.

“논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에는 얼마든지 설득될 수 있다”는 수용성을 갖고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학생들은 금세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들을 쏟아낼 겁니다. 학생 또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구나’란 성공의 경험을 맛보고 나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할 것이고요. 활발하고 자발적인 수업 분위기는 교사가 얼마나 중립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백대표)

**추천! 진로체험 프로그램**

'추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가면 좋을 진로체험활동을 추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 이뤄지는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 넥슨컴퓨터박물관 '꿈이 IT니?'

# “내가 만든 게임, 같이 해보실래요?”



'이지코딩' 프로그램에 참여해 블록코딩을 활용해 나만의 3D 게임을 만드는 학생들의 모습. 넥슨컴퓨터박물관 제공

2018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최초로 시범 종목으로 선정되는 등 '게임'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게임은 전 세계인이 즐기는 콘텐츠인 만큼 수출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도 어마어마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62억4000만 달

리(약 7조 400억원)를 기록했는데 수출액의 무려 55%를 게임이 차지한 것. 이는 K-POP으로 위상이 높아진 음악(7%)의 약 8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로 인해 게임을 만드는 개발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상황.

제주시에 위치한 넥슨컴퓨터박물관에서는 게

임개발자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꿈이 IT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게임 관련 진로적성탐구 △코딩교육 △게임개발과정 체험 등으로 이뤄졌다. 넥슨컴퓨터박물관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육부가 지정한 '2017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꿈이 IT니?'는 게임개발에 관한 다양한 진로 교육을 제공한다. '웰컴 스테이지'에서는 게임관련 직업군을 탐구한다. 학생들은 게임 제작과정을 살피며 게임개발자의 직무가 기획, 아트, 프로그래밍 등으로 세분화되며 각각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배운다. 이를 통해 게임개발 과정을 깊이 이해하고, 각 역할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살피며 자신에게 적합한 직무를 탐색한다.

프로그래밍의 원리와 기초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이지코딩'도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한 기초 교육을 받은 뒤 블록코딩을 활용해 직접 나만의 3D게임을 만든다. 이를 통해 다소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던 프로그래밍 교육을 재미

있게 체험할 수 있다.

넥슨컴퓨터박물관의 '꿈이 IT니?'는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프로그램당 체험시간은 약 40분이며 최대 20명까지 참여가능하다. 체험비용은 무료이나, 컴퓨터박물관 관람비는 별도다. 단, 제주도내 중1 학생은 무료로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를 원할 경우 '꿈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4-710-5180

▶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체험활동 연관 직업**

**게임기획자:** 게임제작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한다. 또한 장르, 연령, 난이도, 캐릭터, 스토리 등을 고려해 소비자들이 좋아할만한 새로운 게임을 기획한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낼 수 있는 통찰력과 창의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게임개발은 일반적으로 팀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도 갖춰야 한다.

● 한국임업진흥원 산하 대전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미래유망 녹색직업 체험'

# “나는 산림의 수호자, 해충을 몰아내자!”



현미경을 이용해 선충을 관찰, 구별하고 있는 학생들. 대전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제공

'임업 분야 종사자'하면 어떤 직업을 떠올릴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목수, 조경사 등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임업 분야에는 이보다 훨씬 다양하고 미래에 각광받는 직업들이 존재한다.

한국임업진흥원의 대전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는 대한민국산림에 이바지하는 미래직업을 소개하기 위해 '미래유망 녹색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익숙지 않은 산림분야의 진로를 제시하기 위해 미래 유망직업으로 꼽히는 나무의사와 산악형 드론 조종사 등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직업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미래유망 녹색직업 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직무실습에 앞서 이론 강의를 듣는다. 이론 강의에서는 나무의사와 산악형 드론조종사에 대한 직업 소개와 안전한 실습체험을 위한 안전교육 등이 이뤄진다.

이론교육이 끝난 뒤 학생들은 모둠별로 나무의사와 산악형 드론 조종사 직업 실습교육을 순차적으로 체험한다. 나무의사 분야에서는 △산림병해충의 이해 △광학현미경을 활용한 산림병해충 관찰 △병해충 피해 진단·검정 등 현미경을 직접 조작하며 나무를 해치는 선충을 관찰·구별하는 체험을 한다. 드론조종사 분야에서는 드론 운용 절차,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드론 조종체험 등 드론을 활용해 산림병해충을 예찰하는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산림분야를 체험하고, 그와 연관된 미래형 신기술도 경험해 볼 수 있다.

직업체험 활동을 마친 후에는 활동과 관련한 질의응답과 센터전문가와 의 진로상담이 진행된다. 이론부터 진로상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산림분야 전문가인 센터직원이 참가해 학생들은 실질적이고도 전문적인 직업체험을 할 수 있다.

대전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의 '미래유망 녹색직업 체험'은 12월말까지 운영된다. 회당 20명 내외의 인원이 참가할 수 있다. 체험시간은 2시간이며 체험비용은 무료다. 참가를 원할 경우 '꿈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42-381-5145

▶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체험활동 연관 직업**

**나무의사:** 산림 및 생활권 수목의 병충해 피해를 진단해 처방·예방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나무가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목병해충을 방제하고, 상해가 있는 부분에 외과적 처치를 하거나, 토양 상태를 점검하여 뿌리가 자라는데 알맞은 환경을 제공한다. 수목은 물론 토양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세심한 관찰력과 인내심 등도 요구된다.

함께 성장하는 스승 제자

'함께 성장하는 스승' 제자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한 교사들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지도 노하우를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 이 사례는 정숙경 경북 풍천중 상담교사의 사례를 기사가 정리했습니다.

# 너와 나, 경계 없이 우리는 모두 친구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풍천중은 전입생이 많은 학교입니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전국 각지의 친구들이 모인 것이지요. 이에 풍천중 Wee클래스(이하 위클래스)는 학생들이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또래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또래상담 동아리'와 '몸으로 부딪히는 공동체활동'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 학교 변화 이끄는 '또래상담사'

위클래스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문제아가 찾는 공간'이라는 등의 인식이 강해 심리적으로 거리가 먼 것이 현실입니다. 풍천중에서는 위클래스에 대한 학생들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친구야! 같이놀자' 또래상담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래상담사들이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위클래스에서도 가볍게 고민을 털고 이야기 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지요.

효과적인 또래상담을 위해 '친구야! 같이놀자' 소속 동아리원들은 상담교사로부터 △대화 의 자세 △공감하기 △대화전략 등의 상담기법을 배웁니다. 이후 실습을 통해 상담기법을 활용해보고, 그 과정에서 오고간 감정을 터놓는 소감나누기 활동을 실시합니다. 감정

을 솔직하게 말하고 듣는 과정을 통해 평소 자신의 울타리 바깥에 있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요.

상담원들은 이러한 상담기법을 활용해 동아리 밖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교내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어나갑니다. 친구의 고민을 깊이 경청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지요. 또래상담사가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덕분에 학생들이 휴게시간을 보내기 위해 위클래스를 방문하는 등 상담실에 대한 거리감이 좁혀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 흘리는 땀만큼 깊어지는 우정

'친밀감형성 공동체활동'과 '우정다지기 공동체활동'은 교우관계 문제가 두드러지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활동은 몸으로 부딪히는 놀이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학생들은 학기 초 친밀한 또래 그룹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전입생,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도미노게임 △'우리 기차는 어디까지?' △단체줄넘기



△친구에 대한 삼행시 발표 등의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여러 친구들과 몸을 부딪치고 땀을 흘리며 평소 자신이 속하지 않았던 그룹의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친밀도를 높였습니다.

놀이 프로그램은 강연 프로그램과 달리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 그만큼 효과도 좋습니다. 학생들이 위클래스에 찾아와 전시된 '삼행시 짓기' 게시물을 보고 뿌듯해하며 "우리 학교 프로그램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경계 없이 서로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 우리학교 연구모임·동아리를 소개합니다

활발하게 활동 중인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소개하고, 이 활동이 학생 지도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알려드립니다.

### 경기 시흥능곡중 교사동아리 '한걸음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 과정 평가하는 자유학기 수업, 함께 만들어가요

경기 시흥능곡중에는 자유학기제의 과정중심평가수업을 연구하는 교사동아리 '한걸음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있다. 해당 연구회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학습평가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다수의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기 위해 교사들이 모여 만든 것. 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서문정 경기 시흥능곡중 수학 교사에게 동아리 활동 내용과 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 동료 교사 위한 수업 프로그램 직접 개발

시흥능곡중 교사들은 자유학기제의 과정중심평가수업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기존 수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국어·영어·수학·사회 과목 등 10명의 교과 교사가 모여 자유학기 수업연구를 위한 연구회를 꾸렸다.

교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다채로운 수업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회 소속 교사들은 개별적으로 3차시 분량의 수업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꼼꼼히 검토하며 다양한 요소를 접목해 학생들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을 기획했다. 예를 들어 수학 교과에서는 교육용 수학 소프트웨어인 '지오지브라'를 활용해 모둠별로 일차함수를 학습하는 활동을 개발했다. 학생들은 지오지브라로 일차함수의 점이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하고, 코딩으로 xy절편을 표현했다. 이를 통해 수학도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교과이며,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학습할 수 있는 과목임을



수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논의 중인 한걸음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모습. 시흥능곡중 제공

깨달았다.

김교사는 "3차시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활용도가 높고 실행하기에 쉬워야 한다"며 "수업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실현하기에 복잡하면 일회적으로 수업을 시도하는데 그치거나 다른 교사가 수업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구회 교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공동협의를 진행하며 수업의 완성도와 난이도를 점검했다. 이렇게 제작된 수업 프로그램은 매 학기마다 진행되는 개별 연구자료 발표회에서 공유되고, 다시 한 번 교사들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 작업을 거친다. 이후 교사들은 최종 완성된 수업 프로그램을 정리해 책자 형태로 재구

성했다.

서 교사는 "수업 구상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를 찾으며 교사 자신에게 잘 맞는 자료를 탐색해본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며 "또한 시험과 무관한 활동에 의욕을 보이지 않는 학생을 대하는 방법, 새로운 평가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등 교사로서 느끼는 고민을 나누며 교직생활의 힘을 얻는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 더 큰 나눔을 위한 노력

연구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널리 공유하는 것. 이를 위해 연구회 소속 교사들은 연구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서 교사는 "자유학기제가 점차 확대되는 만큼 1학년 과목에 국한했던 연구범위를 2~3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회는 교내 뿐만 아니라 학교 바깥으로도 수업 나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달 시흥시교육청이 주관하는 발표회에 참가해 동료 교사들에게 연구회 자료를 선보이기로 한 것. 이를 위해 연구회 교사들은 완성된 연구자료를 취합해 어떻게 전시하고 발표할지 의논하며, 동료 교사에게 효과적으로 수업을 공유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

서 교사는 "많은 교사들이 참석해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수업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핵심 문법만 꼭 쉽게 이해하는 영어 문법 필독서**  
PREP-Grade 1,2,3-SUM(총 5권)

중학교 영어 문법과 독해

# BITE

한 번에 잡자!

**읽어 읽으면서 직독직해하는 영어 독해 기본서**  
PREP-Grade 1,2,3-SUM(총 5권)

Mirae N 에듀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자유학기제'에 자랑하고, 학생 지도 노하우를 공유해주세요. 자유학기제 편집팀 e메일(edudonga@donga.com)로 연락처와 사연을 보내 주시면 담당기자가 전화를 드립니다.

중학교 영어 문법과 독해

# B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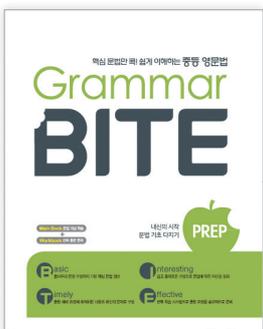
한 번에 잡자!

Grammar B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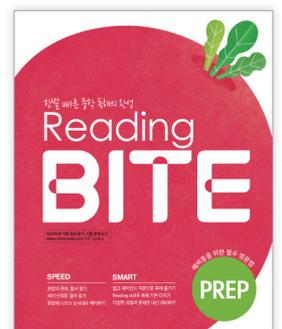
Reading BITE

내신 및 서술형 완벽 대비  
한발 앞선 수능 절대평가까지 대비

꾸어 읽는 직독직해로  
중학 독해부터 수능 독해까지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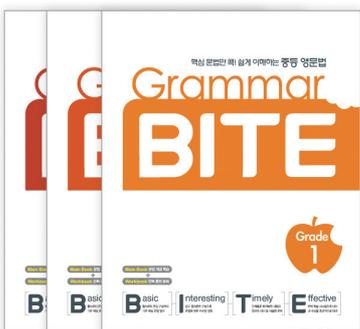


예비중을 위한  
개념부터 내신 대비까지  
중등 영문법 기초 다지기



예비중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읽을거리로  
중등 영어 독해 기초 다지기

PR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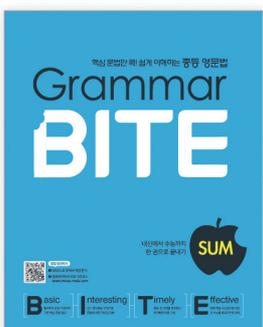


내신대비,  
서술형에서 수능까지  
중등 영문법 완성하기

Grade  
1, 2, 3



꾸어 읽고  
직독직해하며  
유형 중심 중등 영어  
독해 완성하기



예비고를 위한  
내신에서 수능까지  
영문법 한 권으로 끝내기

SUM



예비고를 위한  
유형별 학습전략으로  
한발 빨리 수능 독해 준비하기